

수산물 판매 회복세... 갈치 '국민생선' 등극

고등어 제치고 대형마트 매출 1위 올라 미국산 랍스터 열풍에 갑각류 급부상

갈치가 고등어를 제치고 '국민생선' 자리를 탈환했다. 또 랍스터 열풍 속에 갑각류가 상위권에 진입하는 기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15일 이마트 등 대형마트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까지 자체 매장에서 판매된 수산물 매출을 분석한 결과, 갈치가 고등어를 제치고 어종별 판매고 순위 1위에 올랐다.

실제로 롯데마트에서는 갈치가 고등어를 밀어내고 지난 2010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1위 자리를 차지했

다.

고등어는 일본 방사능 오염수 유출에 따른 수산물 소비 위축의 직격탄을 맞았는데도 주요 어종인 남해안 일대 기상악화로 어획량이 크게 줄면서 가격까지 오르면서 찾는 손길이 더 줄었기 때문이다.

올해 국내산 고등어 어획량은 작년보다 20% 가량 줄었고, 가격도 15% 가량 오르면서 매출이 40% 이상 감소했다.

반면 갈치는 올해 베트남, 세네갈

등 수입산 갈치 판매가 늘어난데다 최근 제주도를 중심으로 어획량이 늘며 가격이 저렴해지면서 고등어를 제치고 가장 많이 팔린 생선이 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올해 11월까지 갈치 위관량은 1만5633t으로 작년같은 기간(1만4311t)보다 10% 가량 증가했으며, 제주수협에 따르면 11월 갈치(1마리·250g 내외)의 평균 위관 가격은 3500원으로 작년 4500원보다 30% 가량 하락했다.

롯데마트에서만 전체 갈치 매출 중 수입산 갈치 비중은 10%에 육박했으며,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2배 이상 늘었다.

또 11월 한달간 롯데마트에서 갈치

는 국산 생선 중 유일하게 지난해보다 240% 가량 매출이 뛰었다.

올해 대형마트 수산물 판매에서 또 한가지 두드러지는 점은 바로 갑각류의 부상이다.

봄·가을에 생산되던 꽃게가 대부분이던 갑각류 매출은 통상 10위권밖에 머물렀지만, 올해는 대형마트들이 잇따라 미국산 랍스터를 들여와 대규모 행사를 하면서 이마트에서는 5위까지 치고 올라왔다.

롯데마트에서는 미국산 랍스터가 인기를 끌면서 갑각류 매출이 전년 대비 66.7% 신장, 고등어까지 제치고 매출 순위 2위로 뛰어 올랐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올해 대형마트 3사가 들여와 판매한 미국산 랍스터

는 대략 100만 마리에 육박한다. 국내산 수산물 소비 위축 속에 수입 수산물 비중은 더 늘었고 수입지역도 확대됐다.

올해 이마트에서 판매된 전체 수산물 가운데 수입산 비중은 52%로 지난해 51%에 비해 1%포인트 늘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일본발 방사능 공포로 수산물 시장이 위축되는 등 매우 힘든 한 해였다"며 "갈치 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지속적으로 펼쳐, 어민과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은행, 신용카드 고객 '케이크 받기 이벤트'

광주은행(은행장 김장학)은 연말을 맞아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아듀2013 케이크 받기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이벤트는 2013년을 보내는 아쉬운 마음을 담아 16일부터 30일까지 펼쳐진다. 광주은행은 이벤트 기간 동안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당일 5만 원 이상 이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다음 영업일에 추첨을 통해 매일 10명씩 총 150명에게 케이크교환권을 발송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가격 하락·수입 증가... 고추재배농 '이중고'

최근 고추가격이 크게 떨어진 데다 중국산 고추 수입마저 늘어 고추 재배농가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2월 기준 풋고추와 건고추의 소비가 가격은 각각 742원(100g)과 1만18원(600g)을 기록했다. 풋고추 가격은 지난해보다 36.4%, 평년(최근 5년 평균)보다는 29.9% 떨어졌고 건고추 가격은 지난해보다 32.5%, 평년보다 8.7% 하락했다. 최근 고추가격 폭락은 지난해 고추가격이 평년보다 20% 가량

올라 농가들이 올해 고추 재배물량을 늘린 데다 작황이 좋아 생산량이 평년보다 약 13% 증가한 탓이다. 여기에 중국산 고추 수입 물량은 지난해보다 배 가까이 늘어났다.

관세청에 따르면 본격적인 김장철이 시작된 지난달 1일부터 24일까지 고춧가루 62t, 건고추 490t 등 총 552t의 고추류가 수입됐다. 이 기간에 수입한 건고추는 전량 중국산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 고추류 수입량은 290여t에 불과했다.

/연합뉴스

식음료 기업 30곳 영업이익 19% 줄어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대표 내수업종인 식음료 주요 기업 30곳의 영업이익이 오랜 불황 탓에 작년 동기보다 무려 19.4% 감소했다.

15일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년 1~3분기 상장 식음료 기업 매출액 상위 30곳의 영업이익(연결기준)은 2조3610억 8300만 원으로 작년 동기의 2조 9280억8000만 원에 비해 19.4% 줄

었다.

매출액 1위 CJ제일제당의 영업이익은 2799억2500만 원으로 작년 동기(4873억1600만 원)보다 42.6% 줄어들었다. KT&G도 6.0% 감소했고 오리온(-13.1%), 롯데제과

(-33.9%), 하이트진로(-31.6%), 농심(-28.0%), 오뚜기(-5.2%), 대상(-9.8%), 동원산업(-13.5%), 남양유업(적자전환), 대한제당(-25.4%)도 부진을 면치 못했다.

반면 롯데칠성음료(20.2%), 동원F&B(30.4%), 롯데푸드(18.8%), 매일유업(5.1%), 삼립식품(24.1%), 풀무원식품(119.8%), 크라운제과(8.6%), 삼양식품(25.8%)은 커다란 성장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이들 30개 기업의 전체 당기순이익도 1조9519억5600만 원에서 1조5239억2200만 원으로 21.9% 감소했다.

주요 상장 식음료기업 대부분의 당기순이익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이들 식음료업체가 실적 부진을 겪자 투자액이 5.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비도 6.5% 감소했다.

/연합뉴스



"아이들과 예쁜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어요"

보혜양조 봉사단

보혜양조 젊은 열세 사람나눔이 봉사단이 광주지역 아동시설에서 다가올 크리스마스 시즌을 화려하게 장식할 크리스마스 트리만들기

행사를 진행했다.

보혜 임직원과 대학생들로 구성된 '젊은 열세 사람나눔이 봉사단' 20여명은 14일 남구 소재 광주영아일시보호소에서 만 2세~3세 아동들과 함께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를 맞이해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 행사를 가졌다.

이번 활동은 젊은 열세 사랑나눔이 봉사단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측의 요청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봉사단 측에서 섭외한 미술 강사 2명과 함께 4개의 트리 장식을 직접 제작하여 전달했다.

/최재호기자 lion@

주간 증시 포커스

美 FOMC회의 양적완화 축소 여부 주목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양적완화 축소(Tapering) 이슈가 올해 내내 시장을 흔들고 있다. 지난 10월 미국정부의 섣다른 우려로 하락했던 국내증시가 이번에는 미국 의회의 재정협상 타결 소식이 양적완화 축소를 앞당길 수 있다며 약세로 작용해 하락했다.

지난주 재정협상 타결과 최근 예상보다 양호한 미국 경제지표 발표에 따라 양적완화 축소 시기는 내년 3월에서 이번주 12월 17~18일에 열리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회의에서 조기실시가 결정될 가능성이 증가한 상황이다. 한 마디로 여기에서 tapering 시기를 종잡을 수 없고 그 영향도 예상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지난주 코스피시장에서 외국인이 1조1000억원을 순매도하며 최근 6개월 중 주간기준 최대 순매도를 보였다. 7월 이후 양적완화 축소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이머징국가로 부각되며 각광받았던 한국증시가 외국인에게 매력적이지 않았던 것일까?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은 양호한 실적을 보였다. 하지만 국내 3분기실적을 발표한 기업 중 수익이 감소한 어닝스크 기업에 67%로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한 미국의 75%나 일본의 65%에 비해 매우 부진한 실적을 보였다.

주식시장 상승에 가장 큰 원동력은 기업실적 증가라고 봤을 때 외국인에게 국내증시가 상대적으로 매력적이지 않은 이유가 될 것이다.

또한 지난 7월2일 1146원이던 환율이 1050원에 임박해 원화강세도 외국인에게 국내주식의 매력이 떨어진 이유이다. 환율과 실적호전으로 최근 일본과 대만증시에서 외국인매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우리나라와 비교가 된다.

이번주 증시시장에서 최대의 관심사는 17~18일에 열리는 미국 FOMC 회의에서 양적완화 축소 실시 여부이다. 양적완화 축소 조기가행이 결정되지 않는다면 호재로 나타나며 최근

매도를 보였던 외국인의 귀환을 기대해 볼 수 있고 시장도 안정 될 것이다. 양적완화 축소가 시행된다면 단기적인 충격은 있겠지만 양적완화 조기 축소를 이미 상당부분 받아들이고 있는데다 규모도 조기실시에 따라 생각보다 작을 것으로 전망 되기 때문에 충격이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어느해 보다 연발렐리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출발했지만 지난 2주간 연발렐리가 무척하게 큰폭의 지수조정 나타났다.

최근 연금금을 제외한 뚜렷한 매수 주체는 없지만 FOMC회의 이후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양적완화 축소와 환율 이슈가 약화되고 연말 배당투자 및 신년기대감이 증가되며 시장은 안정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북지점장>

새마을금고는 아름다운 사랑을 담은 선물입니다.

우수한 예·적금 상품으로 꿈은 더 키워주고 다양한 보험으로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새마을금고는 선물입니다.